

시설원에 '기름난방' 의존율 97%

살인유가 '줄도산' 우려

보온자재 활용 에너지 절감 설비 절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기름난방에 의존하고 있는 전남지역 시설원에 농가의 보온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전남지역 시설원에 면적 4천597ha 가운데 난방이 필요한 가온(加溫)시설원에는 전체의 38.5%인 1천769ha로 전국 평균 20.4%를 크게 웃돌고 있다.

특히 기름을 이용한 난방이 97.

2%(전국 평균 93.9%)를 차지하고 있어 전남지역 시설원예농가들이 고유가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 시설원예농가들의 기름값 부담이 커지면서 생산원가도 상승돼 타지역 시설원예농가에 비해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멜론의 경우 기름을 이용해 재배하는 전남산은 개당 3만원 선인데 반해 기름을 때지 않는 타지

역 제품은 1만5천원선에 출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름 의존도가 높은 현재의 보온시스템을 새로운 에너지 절감 설비로 바꾸거나 열효율이 높은 보온자재 활용도를 높이고 난방이 필요없는 작목 재배를 늘리는 등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히터를 이용한 온풍 난방이나 폐목재를 활용한 난방기 등은 설치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거나 1등급 농산물 생산에 어려움이 있어 농가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새로운 보온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양질의 보온자재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기름 중심의 보온시스템을 새로운 에너지 절감 설비로 바꾸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 농가에서 업무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고유가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보온덮개 등 새로운 자재 보급과 에너지 절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방과후 학교 성과 발표회

구례지역 초·중·고생 등 2,500명

구례지역 방과후 학교 성과발표회가 초·중·고생과 학부모 등 2천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최근 구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올 한해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을 통해 기량을 연마한 미술과 서예, 공예작품 전시를 비롯해 제빵과 제과, 압화 등의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또 식전 행사로 사물놀이와 농악, 가야금 병창 공연에 이어 그룹사운드, 영어연극, 취타대, 태권 무, 플루트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특히 구례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은 영어연극 프로그램에서 수준 높은 영어회화 실력을 과시했다. 또 전남청소년 풍물경연대회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던 구례여중의 대북과 사물놀이 공연은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재난 긴급 구조활동 나주소방서(서장 이재명)가 최근 나주 효사랑 병원에서 '2007년도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유사시 재난수습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훈련에는 12개 긴급구조 유관기관과 25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사랑의 집 11호' 입주식

해남 로타리클럽

해남 로타리클럽(회장 안재현)이 지난 5일 해남군 삼산면에서 '사랑의 집 11호' 입주식을 가졌다. 사랑의 집 11호의 주인공은 삼산면 구리리 박해수(46)씨로 로타리클럽은 870만원의 자재비를 부담하고 회원들이 손수 나서 8평 규모의 조립식 판넬 주택을 신축했다.

한편 해남 로타리 클럽은 매달 회원들이 1만원씩 모금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1~2채의 집을 지어주고 있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신생아 출산땀 나무 심어줘요"

영광군, 8가정에 감나무 선물

영광군이 신생아를 출산한 주민들의 집에 감나무를 심어주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일 묘량면 직원들은 올해 신생아를 출산한 관내 8가정을 방문, 출산을 축하하는 감나무를 심었다.

이 행사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고객감동 행정서비스와

행복나누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묘량면은 신생아 출산시 축하카드를 발송하고 해당 가정을 방문, 꽃씨 뿌리기와 대봉 감나무 식수 등의 행사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애양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조기 선별작업 한창

본격적인 조기 철을 맞아 영광 법성 수협위판장에서 조기 선별작업이 한창이다. 올해 전남 서해안에서 잡히고 있는 조기는 양도 많은데다 육질이 단단하고 맛도 좋아 양질의 굴비 생산이 기대되고 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신안 증도 엘도라도리조트 공유수면 1년간 불법 점용

신안군 증도면에 있는 엘도라도 리조트가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용, 1년여 동안 사용한 혐의로 해경에 고발됐다.

신안군은 엘도라도 리조트가 허가 받지 않은 채 해안가에 460㎡ 규모의 목조 테크시설을 하는 등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사용을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군은 엘도라도 측에 오는 21일까지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는 한편 목포 해경에 고발했다.

증도면 우전리 해수욕장에 인접한 엘도라도 리조트는 지난 해 7월 개장했으며 객실 108개를 갖추고 있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한방산업 관·학협정 화순군-동신대

화순군이 최근 동신대학교와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관·학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화순군과 동신대는 한방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상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공동으로 한방관련 식품개발 및 상품화 전략을 모색한다.

또 각종 프로젝트를 공동 개발하는 등 상호 협력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나주시의회 '1인 사무실' 비난 고조

의정비 대폭 인상 이어... "활용도 낮은 사무실만 늘린다" 불만

나주시의회가 의정비 대폭 인상에 이어 의원용 1인 사무실 확보에 나서 비난이 일고 있다.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의원 사무실이 2인 1실이라서 비좁고 민원인 상담시 불편이 적지 않다는 이유로 1인 1실로 변경할 계획이라는 것.

시의회는 이를 위해 의원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과 집기, 사무용품 구입, 1

층 현관로비 조정 등 5천여만원의 예산을 반영, 최근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의원 사무실 활용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면 불필요한 예산낭비는 지적이 많다. 특히 연간 사용일수가 많지 않은데도 1인용 의원 사무실을 위해 거액을 지출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선거구 개편에

따라 의원 정수가 줄어들어 빈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별도로 사무실을 늘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나주시의회는 관광성 유업 의유를 추진하고 광주·전남 지방의회 가운데 의정비 인상을 최고(75%)를 기록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

나주지역 축제, 이대론 안된다

도, 조상에게 물려받은 관광유산도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과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 한평나비축제를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축제로 정착시켰다.

반면 나주는 어떠한가? 목사골이라는 명칭이 걸맞게 많은 문화유산과 영산강을 끼고 있으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계절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축제와 연계하는 노력도 찾아보기 힘들다.

얼마전 열렸던 반남 국화축제는 영산강 문화축제 기간에 무리하게 맞추다보니 꽃없는 축제가



정철현

(사회2부 나주주재)

관객 유치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비슷한 프로그램으로는 지역 축제의 티를 벗지 못했다.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고 기간도 2~3일 정성으로 승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축제 전문가를 영입해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남이 하니까 우리도 개최한다' 식의 축제는 접을 때가 됐다.

/chung@kwangju.co.kr

국내 판매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선한 공기,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최고의 선택! **무등산업**의 공기청정기, 에어컨, 난방기, 에어컨, 난방기, 에어컨, 난방기.

최고효율의 특이 기술력! 냉세, 소음 저감 장치 채택

무등산업

지속되는 유가, 연금 폭탄 부담 **겨울 난방 고민 끝~**

초절전형 냉난방기 리스 하자!

무르두인 호피!

유치자 12개월 분할, 비용 30%까지 절감

최대 80% 할인

080-372-2900